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### 글로벌 컨테이너선 오더북 두 자릿수로

2020년 4분기에만 25척의 메가 컨테이너선이 발주된 결과,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 대비 오더북 비율이 두 자릿수로 올랐다고 보도됨. 4분기 중 673,500TEU나 발주된 것은 5년만이며, 이 중 591,000TEU가 23,000~24,000TEU급 메가 컨테이너선이라고 보도됨. (선박뉴스)

### VLGC 용선 시장 날개

84,000CBM급 VLGC의 1년간 용선료가 월 160만달러수준으로 1일 용선료 환산 시 52,500달러라고 보도됨. 2020년 11~12월 일일 용선료 3만~4만달러대비 크게 상승했다고 보도됨. 동북아 지역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LPG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보도됨. (선박뉴스)

### 일본의 1,2위 합병 조선사, 경쟁력 발휘 쉽지 않을 듯

일본 1, 2위 조선사인 이마바리조선과 JMU(Japan Marine United)가 설립한 Nihon Shipyard(NSY)가 1월 1일부로 정식 출범했으나 한국,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조선시장에서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됨.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자국 언론에서 조차 한국, 중국과의 격차가 메워지길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됨. (선박뉴스)

### 삼성중공업, 다목적 해상실증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

삼성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(KOMERI)이 수행하는 '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성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' 사업자로 최종 선정 됐다고 보도됨. 이 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국책과제로 정부 주도로 건조할 2만톤급 실증 선박에 삼성중공업이 스마트십 플랫폼 '에스베슬'을 탑재하고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의 친환경 장비 성능 검증 및 고도화와 관련된 연구를 2023년까지 수행할 계획이라고 보도됨. (선박뉴스)

### 한국항공서비스 새해 첫 수주…제주항공과 항공기 6대 정비 계약

현대로템이 군에서 운용 중인 기동전투체계의 원격·무인 운용 기술을 개발한다고 보도됨. 현대로템은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에서 발주한 기동전투체계 원격 무인화 기술 개발 제1과제와 제2과제를 수주했으며, 총 152억원 규모라고 보도됨. 두 과제 모두 2024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보도됨. (연합뉴스)

### 한국항공서비스 새해 첫 수주…제주항공과 항공기 6대 정비 계약

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의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(KAEMS)가 제주항공과 B737-800 항공기 6대 정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. 티웨이항공과도 동일 기종의 추가 수주를 협의 중이며, A320 계열 항공기를 다수 보유한 항공사들과도 정비지원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됨. (연합뉴스)